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8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놓고 또 놓으세요 그것이 정진입니다”

15면에서 계속

까? 지금도 모자라는 생활비로 있는 돈을 쓰고 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자격증이라도 따야 하나? 기도를 일과를 정해서 하는 게 나을 텐데... 여러 생각만이 스칩니다. 벗어내고 싶은 마음에 스님께 글을 올립니다. 욕심이 부끄럽지만 저에게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 부끄럽지만 스님 도와 주십시오.

답 자신이 자신을 도와야 누가 있어서 도와주겠습니까? 살아가기가 어렵기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사는 삶은 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공부의 도리를 배우고 가는 한에는 삶은 고가 아닙니다. 설사 괴로운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은 주인공이 나를 성숙시키려는 것이니 오히려 기회이겠지요. 열심히 믿고 관하십시오. 설마하니 산 목숨 풀기야 하겠습니까? 믿고 맡기고 관하는 중에 허허! 웃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를 저의 공부 재료로 삼아 관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인연이 있어 지금의 현상이 벌어진 것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예수재를 올리면 좋아질 것 같은데 예수재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병명도 없이 저의 몸이 생활하기에도 얼마나 아프고 기운이 없는지 정말 고통스럽게 업무를 해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큰스님 친견도 여러번 하였지만 수행하는 과정에 이러한 아프고 힘든 문제가 저의 인생에서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단련하는지요.

또한 목욕도 관하며 믿고 놓고가야겠지만 조금만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좋은 가르침을 청합니다.

답 아버님께도 마음공부하실 기회를 만들어 드려보세요. 물질로 도와드리는 것만이 돕는 게 아

는 저도 과외를 하고 해서 백중에 조상님을 위해 발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더욱이 저의 아버지는 소위 '조상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시며 불교라 하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험담을 하십니다. 아버님은 나이를 드셔도 제대로 사회물정 모르고, 뼈빠지게 모은 이십억자산 남에게 다 날리고, 큰형은 중삼없이 이리저리 왔다가 증산도란 종교에 심취하고 큰형수는 점과 부적에 매달리고, 작은 형은 철저히 정신을 부정하고 자기만 잘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음공부를 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앞서간 조상님의 업장을 녹여

“나는 누구인가” 의문 안풀려요

문 물음이 있어 삼가 여쭙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오늘도 과거에 내가 행한 일들과 여러 인연들의 생각에 휩싸이다가 문득 어딘가 나 온 곳이 어디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가 움직이고, 공부하고, 지금 자리 앉아 있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묻고 하다가 속 시원한 물음을 구하고자 감히 스님전에 말씀 여쭙니다. 주인공 공부를 처음에는 어느 유일신처럼 느끼고 반항이던 반항으로 살아온 것도 사실이고, 선원에 다니면서도 가르침을 의연하고, 가피나 운명을 바꾸기

이따금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적도 있어 한번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2층에 세든집으로 가는 전기선을 끊어버려 가족들을 당황하게 한 일도 있습니다. 과연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옳은 것인지 답답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놓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일체를 주인공에 놓고 관하는 가운데 한 생각 일으키면 사대로 통신이 된다고 했지요. 가족이 모두 한마음으로 놓고 관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동생과 내가, 또는 부모자식이 한마음 주인공자리로는 둘이 아니니 어찌 통신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일심으로 그렇게 하다면 잘 될 겁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게 탈인데 그까지 한번 죽지 두번 죽겠느냐 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놓고 관하면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진실치 못한 제모습 괴로워요

문 스님 제 마음속에서 녹아지지 않고 걸려있는 생각들을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저 자신의 진실되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는 것이 괴롭습니다. 둘째는 저의 말과 생각만큼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셋째는 출가를 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이 길을 갈 수는 없을 거라는 의심입니다. 스님 이러한 생각들이 불꽃 불꽃 솟아오를 때마다 놓고 또 놓으면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기에 여쭙습니다.

답 항상 말씀드리듯이 선도, 악도 혹은 언뜻은 생각 좋은 생각이 모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잡재의식에 입력되어 있던 것이 무시로 풀려나오는 것이니 즐거워도 내가 뿌린 씨앗이요 괴로워도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그러

“후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지 마세요 지극한 마음으로 놓으면 답 찾게 돼요”

청년은 금강경 읽지 말라는데...

문 저는 올해 31살 된 불자입니다. 평소 출퇴근하면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길에서도 시간나는 대로 <금강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친구분 중에 불교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젊은 사람은 <금강경>을 읽으면 재앙이나 어려움이 생기니 읽지 말고 큰스님과 의논하여 다른 경전을 읽으라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금강경은 나이가 40~50세쯤 되어서 읽으십시오.

답 내가 가르쳐주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말씀이 다 마음 심(心)자 한자로 설하신 것인데 거기에 무슨 구별이 있고 나이따라 읽고 말고 할 것이 있었습니까? 그분 말씀은 자칫 '다 공했다더라' 하는 생각에 빠질까 봐 그러시는 모양인데 부처님 말씀 어디에도 허물을 가르치신 곳은 없습니다.

니질 않습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신다면 아버님도 받아들일 겁니다. 예수재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결과를 바라고 재를 올리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그점은 스님들께 여쭙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걸 재료삼아 믿고 맡기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문 저는 불자라고 하지만 계를 받기 못했습니다. 어쩌하면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주처에 몰록 놓으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정신과 마음이 각각 움직이고 주처에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니 어쩌하면 주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몰록 놓을 수 있는지 큰스님 전에 하답을



그림 · 최주현

주인공에 놓으니 편합니다

문 너무 자주 질문 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 탓에 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부하다 보면 관념이나 사랑, 나라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나 하니 그것도 주인공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는 생각으로 나라는 생각 아만, 이상, 사랑 그런것들을 없애야 하고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였거니 너 알아서 해 하니까 골머리 썩을 필요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니 하면 더 생각할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스님에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 그냥 편안하다는 느낌만은 부족합니다. 이 공부하는 놓는 가운데 지켜보는 도리가 있으니 말씀하신대로 아만, 이상을 놓고 가되 내 주장자 심봉으로 돌아 놓으세요. 주인공이라 해도 좋고요. 강한 믿음으로 몰아쳐야 더는 빠질데가 없어서 '그래, 나왔다 어쩔래' 하고 터지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놓고 가면 종전보다 좀 편해진 듯 싶겠지만 그 보다는 심봉이 딱 박혀야 맺돌이 힘을 받듯이 그렇게 들고 들어가야 샘물맛을 보게 됩니다.

**선도 악도 모두 내속에서 나오는 것
 즐거워도 괴로워도 내가 뿌린 씨앗**

기에 나오는데로 그 자리에 다시 놓고라고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말하자면 나의 녹음테이프에서 흘러간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새 것을 재입력한다면 새 노래가 나오게 되겠지요. 지우면 공테이프가 되고요. 생각만큼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틀이 아니라 다 내 마음의 나뭇잎입니다. 먼저 그렇게 닦는 마음부터 놓고 또 놓아야 합니다. '이것도 주인공 저것도 주인공 뭐이다' 하면서 나오는 족족, 놓고 맡기세요. 그래야 '내가 진실되지 못하다' '내가 괴롭다'는 거에서 '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출가를 하든 않든 마음공부엔 그런 조건이 붙질 않습니다. 반야를 놓치지 않는다면 24시간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부처 · 증생으로 갈라진 이유

문 족심시불이라는 법문에 의하면 마음이 곧 부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은 증생과 많은 수행을 하여 진리를 깨친 부처님과는 천양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마음으로 인해서 범부도 되고 마음으로 인해서 부처도 되는데 같은 마음을 작용하면서 증생도 되고 부처도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편집자)누구든지 본래의 마음자리, 근본 성품은 청정하고 여여합니다. 족심시불이란 바로 그런 마음자리가 곧 부처의 마음자리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관을 통해 대상과 접촉하면서 애착 · 탐욕 · 분노 · 두려움 등 갖가지 느낌과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마다 좋다 나쁘다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 즉 현상계의 참모습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아무런 그런 이유로 해서 본래 청정하던 마음이 더럽혀지게 된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하늘에 구름이 낀 것 또는 색안경을 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알게 되니까 부처와 증생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사물의 참모습을 바로 깨달으려면 여덟 겹의 바른길(팔정도)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깨달았다는 것은 실상을 바로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에 낀 때를 벗겨내고 본래의 마음자리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도와야지 누가 도와주나 반야줄 놓치지 않는다면 24시간이 참선

아버지가 무능합니다

문 저는 선원에 다닌 지 6년이 되어 갑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중에서 특히 저희 아버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평생 사업을 하여 왔지만 제대로 가정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늘상 쪼들리게 살아왔습니다. 무능력하여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수많은 의도와 무책임한 행동 등으로 인하여 저의 어머니와 삼형제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현재는 삼형제 모두 결혼하여 독립하여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저와 동생들을 자주 찾아오셔서 사업자금을 대라든지 용돈을 달라 합니다. 한 달에도 서너 번씩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너무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부모자식 사이가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도 참다참다 못하여 집을 나가라고까지 하시지만 아버지는 사업을 해서 일확천금을 벌 공리만 하시기를 무려 1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물론 집에는 생활비 한 푼 갖다 주시는 것은 없이 타다 쓰시면서 시기꾼들의 말만 듣고 그들과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받고 싶습니다. 불교는 어떤 이름의 종교라기보다 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계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들은 누구나 다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에 의지해서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 따로 마음 따로인 것도 다 나의 근본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따로 따로라고 볼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온 것이니 그마저도 거기에 되놓는 것이지요.

조상 업장 녹이고 싶습니다

문 칠석과 백중 그리고 저의 가족 천도재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스물 아홉인 학생입니다. 직계조상의 묘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인 자식을 버리고 떠나고, 그 후 생계가 곤란하여 찾아온 자식에게 모진 박대를 하여 죽을 생각까지 한 것이 저의 가계의 한 단면입니다. 친할아버지 형제분들도 제각기 흩어져 어디에서 돌아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삼년전 어느 대척스님의 말씀에 절된 다하여 천도재를 올린 적이 있고, 작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도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학교에 돌아와 일어나는 생각을 놓지 못하고 눈물까지 나게 되어 한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고, 더욱이 큰스님의 법문을 받드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차마 묵과 할 수 없어서 마음 굳건히 먹고 큰스님께 목놓아 이렇게 불원합니다. 내 앞에 닥쳐오는 일체 경계는 다 나를 성숙케 하려는 공부재료라고 할 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경계 속에서 바르게 한 생각 돌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대로 놓고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감사하며 놓으라고 했습니다. 공부나 무르익기 전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누구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놓고 또 놓아라, 그것이 정진이다' 한 겁니다. 가족의 사연은 딱하지만 본인의 힘이 미치지 않는데야 오로지 마음공부의 길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오직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입니다. 허공으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위해 부적이거나 점을 통해 무진 앓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득 그것이 나 아닌 다른 것이다, 그럼 나란 누구인가? 되물고, 여러 생각 나오면 좋은 지, 나쁜 지 판단하는 경험까지 있습니다. 스님, 지금 나를 움직이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가 어디인가? 무심코 일어나는 생각을 놓으면 전에 보다는 고요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어리석은 범우에게 무량광대한 법을 살려주시오면 대단히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답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이 공부를 하지만 공부한답시고 '나는 누구인가'에 매달린다면 빔 빛 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걸지도 않고 뛰는 격으로 '나'를 찾으려 하지 말고 무조건 놓고 가세요. 놓고 또 놓고 가다보면 '나'가 발견 되는 것이지 찾았다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찾았다는 생각, 무엇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놓고 '주인공, 있다면 나와라' 하고 돌아 보세요.

환청들린 동생 행패심해요

문 다름이 아니고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동생이 환청들이 있고

유학중에 귀국을 고민합니다

문 저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스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쭙어 보고 싶어서 감히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졸업이 몇 학기 안 남았는데, 지금 주위 사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제가 이 곳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있어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할지 저 자신도 결정을 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이 곳에 와서 더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더 열심히 살아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후회가 생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사랑에 의지하는 마음부터 놓으세요. 오직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지 않아!' 하고 사무치게 일념으로 몰아치세요. 조금만 생각은 금물입니다. 후회 따위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놓고 지켜보면 답을 찾게 됩니다. 후회를 이럴까 저럴까해서

협 찬 한마음